

'25.9.1.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현장방문

---

# 현장방문 소감 및 당부말씀

---

2025. 9. 1. (월)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 대 영

## < 현장방문 소감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하나은행장님, 소상공인 예금자분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제도 시행 소식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그동안 은행이 잘 준비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직접 통장을 개설해 보고 나니

‘오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창구를 찾는 국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세심하게 준비했을 분들이  
바로 은행 임직원 여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 당부말씀 ① : 금융회사의 제도적 혜택 >

금융회사는 이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은행을 의미하는 영어 '뱅크(Bank)'의 어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맡기고 찾던 장터의 벤치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반코(Banco)'입니다.

신뢰는 은행 영업의 핵심 요소이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명심해야 합니다.

## < 당부말씀 ② : 금융회사의 혜택 환원 >

오늘 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은행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독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 모인 물을 적재적소로 흘러 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자금의 물줄기가  
'성장의 밭'으로 흐를 수 있도록  
거대한 수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예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 a)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주십시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에 따르면  
시장 질서의 뼈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타심입니다.

금융권이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